

# 효성, 신소재 '폴리케톤' 최초 개발

### 독자기술로 10년간 연구개발, 제품화 성공 플라스틱소재 세계시장의 30% 점유 계획

효성이 '신개념' 고분자 소재인 '폴리케톤'의 개발 및 제품화에 성공했다. 75년 전 미국에서 나일론이 나온 이후 고분자 소재로는 세계 최하다.

효성은 4월 10여년간 500억원의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 독자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고성능 신소재인 폴리케톤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폴리케톤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일산화탄소와 올레핀(에틸렌, 프로필렌)으로 이뤄진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로, 나일론 대비 충격강도는 2.3배, 내화확성은 30% 이상 우수하며 내마모성 역시 최고 수준인 폴리세탈(POM) 대비 14배 이상 뛰어나다.

폴리케톤은 크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용도와 초고강도 슈퍼섬유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우수한 내충격성, 내화확성, 내마모성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자동차·전기전자 분야의 내외장재 및 연료계통 부품 등 고부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용도로 적용되며 초고강도, 초고탄성률의 특성을 가진 슈퍼섬유로 타이코드, 산업용 로프, 벨트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

효성은 폴리케톤과 관련 이미 국내 133건을 비롯,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해외 27건의 신물질(폴리케톤) 관련 특허출원 및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2012년 울산에 연산 1000t 규모의 폴리케톤 종합 생산 설비를 구축, 폴리케톤 소재를 양산하고, 상업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확보했다. 또 효성은 현재 60조원 규모로 매년 5% 이상 성장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분야에서 향후 세계시장의 30%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한국 기업이 세계 최초로 고분자 신소재를 개발한 것은 폴리케톤이 처음이다. 이번 소재 개발 성공으로 오는 2020년까지 폴리케톤이 대체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직접적인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1조원, 폴리케톤 소재를 활용한 부품 및 완제품 등 전후방사업까지 포함하면 그 부가가치는 최소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폴리케톤은 우리나라 소재산업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축으로서 국가브랜드 가치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우산성 효성기술원 사장이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소재 개발·상용화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첨단 고분자 신소재 '폴리케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복합재료 권위자인 김병철 한양대 교수는 "폴리케톤은 소재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부터 개발을 추진해 온 미국과 일본의 선진화학업체도 기술확보가 어려워 상업화에 실패한 소재"라며 "효성이 세계 최초로 소재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한국이 관련 산업에 대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새로운 국가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홍기자 exian@kwangju.co.kr

# 광주 등 지방 대도시 '중추도시권' 육성

###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대도시 15곳 안팎·내년 2월까지 지정

### 여수·순천·광양, 목포·무안 등 도시 2개 이상 묶어 개발

정부가 광주, 여수·순천·광양, 목포·무안 등 지방 도시권을 2개 이상 묶어 연계 개발하는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15개 안팎의 중추도시권 단위 개발과 생활 인프라 조성이 맞출 형태로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의 핵심 지역 발전정책인 '지역혁신생활권'의 한 유형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중추도시생활권(중추도시권)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과거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이 낙후 지역을 대규모 개발하는 것이었다면 중추도시권은 넓은 지방 대도시를 개발해 도심권의 개발의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확정된 중추도시권 지정 기준은 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접근성·연계성을 갖고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방 한 개 도시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이면 2개 연담도시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곳은 전국적으로 16곳, 인구기준에 미달하지만 도청소재지가 위치한 지역은 4곳 등 총 20곳

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인구와 지역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중추도시권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와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목포시·무안군, 전북 전주·군산·익산시, 경남 창원·김해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등 15곳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개발 유형은 크게 '대도시 중심형'과 '네트워크 도시형'으로 나뉜다. 대도시 중심형은 광주권 등 광역시 중심의 도시권이다. 네트워크 도시형은 순천-여수-광양처럼 1개 또는 2개 도시의 인구 규모(50만명 이상)와 도청소재지, 종합병원, 종합대학 등 중추기능을 공유한 인접 지자체의 생활권을 하나로 엮는 것이다.

중추도시권 육성 수단은 도시재생·도시재정비촉진·노후산단 재정비·도시첨단산단 조성·광역도로 건설·도시철도 건설 등 현재 국토부 소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중추도시권에 우선 배정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이들 사업의 효과를 높여겠다는 것이다.

대신 광역도로나 철도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순위를 조정해 중추도시권을 우선 지원하고 공모방식이나 시범사업을 지정할 경우에도 중추도시권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내년 3월까지 지정할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중추도시권에 우선 배정해 도시 활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2015년까지 9개를 지정할 도시첨단산단 역시 중추도시권을 중심으로 우선 지정하기로 했다.

중심도시 인근 지역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복지 서비스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광역도로 등을 확충하는 등 광역교통의 연계성도 개선한다.

정부는 중추도시권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내년 2월까지 중추도시권 지정을 일단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예상하는 15개 권역이 모두 이 기간에 신청을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자체간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기에 중추도시권 개발의 핵심인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내년 243억원에 불과하고 중추도시권의 개발 수단이 대부분 기존의 국토부 소관 사업을 엮은 것에 불과해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박지사 "공직자 부패 부끄럽다" 이례적 질타

### 부패비율 전국 최고... 임기만료 앞둔 공직기강 다잡기 시각도

"전남도의 공직자 부패비율이 높아 (도지사로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박준영 전남지사(사진)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던 '전남도 공직자 부패'에 대해 이례적으로 감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지사는 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최근 도청 및 시군 공무원 부패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관련해 "이웃, 친구, 가족까지 손가락질할 수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공직 석상에서 한 기관의 수장이 자신들의 처부를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박 지사는 "국감 이후 나도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도청에 온 사람들이 건물 잘 지어줬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도둑놈 소굴'이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자책했다.

또 "(전남도가) 공직자 부패비율이 가장 높다. 국회 예산 요구할 때 국회의원들이 뭐 보겠느냐, 이웃도 부패 관료라고 손가락질한다. 친구도 마음속으로는 (전남 공직자가) 깨끗

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지사의 '작심 발언'은 지난달 끝난 국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호트러진 공직 분위기를 잡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자칫, 임기 말치는 서울시의 30% 가량이며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는 서울시보다 더



많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지사는 "이번 국감 지적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짐을 하지 않았다면 공무원 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실국에서는 부패비율 척도를 위한 대책을 연구하고, 모든 공무원들은 부끄러운 10월을 보내고 11월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공직을 수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박 지사의 발언에 대해 내부에서는 3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호트러진 공직 분위기를 잡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자칫, 임기 말치는 서울시의 30% 가량이며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는 서울시보다 더

# 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 국회토론회

### 7일 박혜자 의원 주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법인위탁을 전제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법안처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주당 박혜자(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가 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문화도시정책과장이 특별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한다. 이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주제를 놓고 김종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김상호 광주시문화관광정책

실장, 이승권 조선훈 교수, 이창기 강동아트센터 관장이 토론을 벌인다.

광주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은 이와 관련, "문화전당을 어떤 조건으로든 법인화하면 공공성보다 수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며 법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토론회에 참석,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만든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9월27일 국회에 제출돼 현재 박혜자 의원이 몸담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전당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시아문화원 또는 관련 전문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 시민이 만드는 문화 수도

### '책 읽는 벤치' 100호 돌파

지난 9월 시작된 '책 읽는 벤치'(광주일보 9월9일자 2면) 벤치지기가 100호점을 돌파했다. 100호점의 주인공은 문흥동에 거주하는 40대 주부로 알려졌다. '책 읽는 벤치'는 집 앞이나 공원의 벤치에 책이나 잡지, 신문 등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놔두는 캠페인이다. 시민 누구나 벤치에 놓인 책을 읽을 수 있으며 다른 책과 교환도 가능하다.

'책 읽는 벤치'의 가장 큰 덕은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주도된 사회운동이 아니라 개인이 자발적으로 나선 생활 운동이라는 점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책의 방식, 놓는 방법, 수량 등도 모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책 읽는 벤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만 책 옆에 설치하면 된다. /김홍희기자 kimhy@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높게 ↑  
금리는 은행만큼 낮게 ↓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

##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자루 영광 →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2475-0933  
010-5166-0013

##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 임대 (병·의원) 임대

2층 : 양·항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의 062) 651-6581  
010-3690-7790

## 광주불교방송(KJBBS) 사장 초빙 공고

(제)불교방송에서는 경영 능력과 불교소양을 갖추고, 전발활동에 사명감을 가진 분을 광주불교방송사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1. 임용 예정 직위 및 인원
  - ① 직 위 : 광주불교방송 사장 1명
  - ② 임 기 : 임용일로부터 4년
  - ③ 자격요건 : 1975년 이전 출생자, 불교신자
2. 제출서류
  - ① 자필이력서(사진/상벌사항/서명 또는 날인 포함) ..... 1부
  - ② 경영계획서 ..... 1부
  - ③ 주지스님 추천서 ..... 1부
3. 제출일시  
2013년 11월 15일(금)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함.
4. 제출처  
광주불교방송 총무부 (광주 062-520-1112)  
주소: 광주불교방송 500-868 광주광역시 북구 삼우대로 1270 (임동 78-2번지)
5. 심사방법 : 서류 심사 및 면접
6. 면담일시 : 추후 개별 통보

※ 참고사항  
1. 후보 제 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문의 : KJBBS 광주불교방송 총무부 Tel: 062-520-1112

(제) 불교 방송  
http://www.kjbbs.co.kr/